

Daily Auto Chec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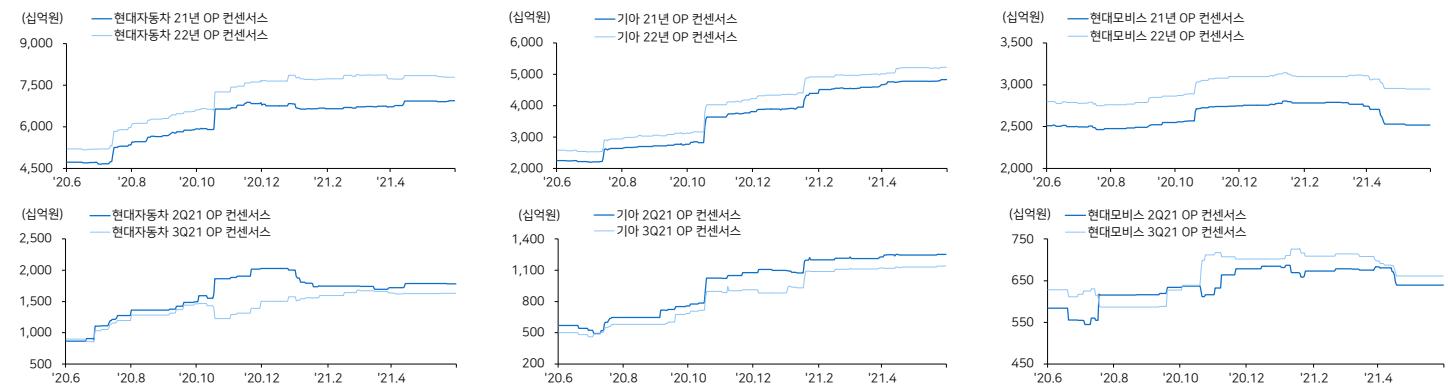
2021. 6. 14(Mo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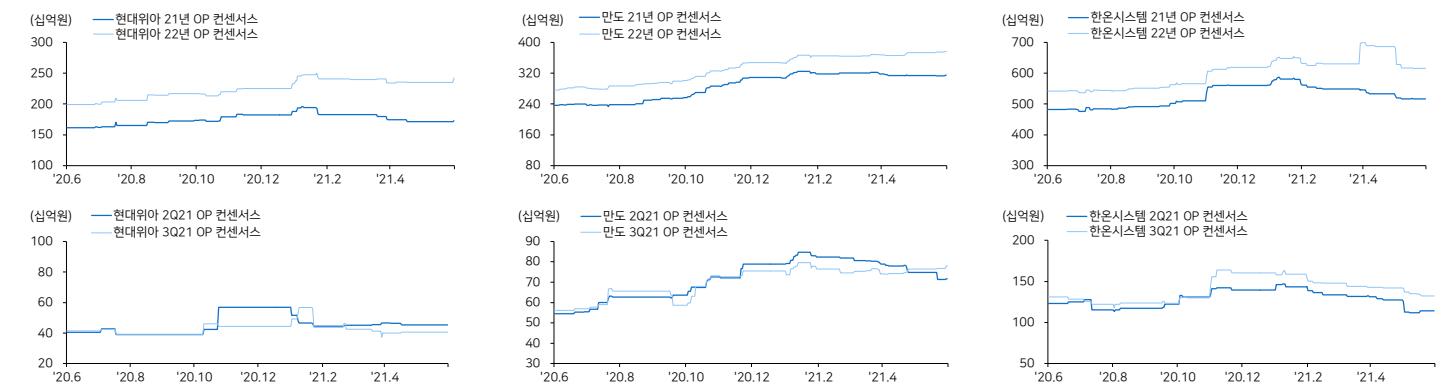
meritz 메리츠증권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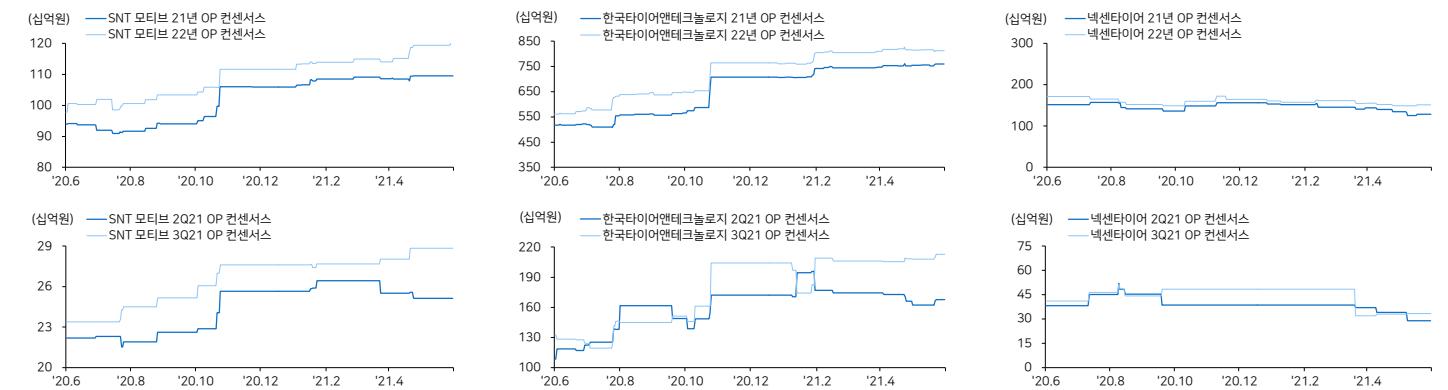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정의선, 두 달 만에 美 출장길…이번엔 동부로 (한국경제)

정의선 회장은 이번 미국 동부 출장에서 뉴욕, 보스턴 등 동부 지역을 약 1주일 돌며 현장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짐. 지난달 74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정 회장이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.

<https://bit.ly/35eIIuD>

현대차 합작 '모션셀, 로보택시 기술 트럭 부문 확대 시사 (THE GURU)

칼 이아그라마 모션셀 CEO는 TechCrunch's 2021 Mobility Event에서 "자동차 기술을 트럭 부문으로의 사업 확대 가능성 있다"고 밝힘. 모션셀은 6월 2일 라스베이거스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없는 다수의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성공리에 마침.

<https://bit.ly/3ghk9eu>

모빌리티업계 전기차 도입 확대, 카카오 택배 쏘카 선점경쟁 치열 (비즈니스포스트)

모빌리티업계 카카오모빌리티, 티맵모빌리티, 쏘카는 전기차 마케팅을 강화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각각 확충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·장기차 도입을 확대하는 분야도 택시호출, 내비게이션, 차량공유 등 폭넓게 진행됨.

<https://bit.ly/3cGUOsi>

EV 픽업트럭 둔다…미국 전기차 시장 '개임체인저' (THE GURU)

미국 내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인 EV 픽업트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중. 미국 픽업트럭 시장을 이끌던 빙 3 포드, GM, 스텔란티스는 물론 테슬라, 리비언, 로즈타운 등 전기차 업체들도 EV 픽업트럭을 공개하거나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.

<https://bit.ly/3xd0jOZ>

기아차, 11월부터 로봇 입고 공장서 일한다…국내 첫 도입 (매일경제)

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오는 11월 국내 공장 내 생산라인에 웨어러블 로봇을 적용할 계획.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1차 현장 테스트를 실시했고 올해 2월 말 제작사 현대로템과 개선사항을 논의함.

<https://bit.ly/3znsh9I>

10조 고가매입 논란 '현대차 GBC 부지…땅값 22조로 올랐다 (한국경제)

서울 강남구역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부지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(GBC) 땅값이 현대자동차그룹의 매입 시점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됨. 7년 전 매입 당시에는 '너무 비싸게 샀다'는 논란이 적지 않았던 바 있음.

<https://bit.ly/2U7FUD7>

마포서 수서까지 5분… "UAM이 부동산 시장도 바꿀 것" (조선일보)

독일 '릴리움', 미국 '조비항공', 국내 '한화시스템', '현대차' 등은 eVTOL(수직 이착륙 소형기체) 개발에 열을 올리는 중. 증권·투자업계에서는 UAM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분석도 제시됨.

<https://bit.ly/3zmj6P7>

테슬라, 글로벌 자율주행테스트 추진…인력 채용 '속도' (THE GURU)

테슬라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테스트할 인력을 채용하는 등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에 속도를 내는 중. 미국을 벗어나 해외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 인력 채용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.

<https://bit.ly/3vtfJW7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